

학과회비 투명하게 집행해야

외부감사 도입 전에 윤리의식 제고를

학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걷는 학생회비와 행사비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현 대의원회 감사시행세칙에는 대의원회가 단과대까지만 그 사용 사항을 감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과 학생회비가 잘못 사용돼도 제재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학과 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분배되는 재원과 함께, 학과 자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MT, 체육대회 등과 같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납부받아 마련된다. 이렇게 모아진 뒤, 사용되는 예산은 그 내역을 과경지출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단과대회칙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이 견제되고 있는 회비가 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이를 감사하고 제재할 실질적인 수단은 없는 상태이다. 과내의 투명한 회계관리

와 책임의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MT비로 건어진 돈이 과 집행부내의 담배 및 생활용품, 식비 등 개인적인 부분으로 쓰이는가 하면, 행사 진행시 쓰이는 물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구입해 과다한 지출로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정대학 김모 학생은 “정기총회에서 잘못 사용된 부분을 질문했을 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답변만을 받았다”며 “잘못된 사항에 대해 이미 지나간 일이나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나와 과 학생회가 회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재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타 대학의 경우에는 총대의원회가 있고 각 단과별로 대의원회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으로

회계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학교 감사관리체계는 예산문제로 인해 대의원회가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라 각 단과별로 상임위원회를 2명씩 선출해 단과 예산을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선출된 상임위원회는 영수증과 장부가 맞는지만 확인할 뿐, 현실적으로 각 과까지 상세히 감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의원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철(정치외교 4)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 대의원회가 타 대학의 총대의원회와 같은 체제를 구축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임기동안 각 과까지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즐거움 비눗방울놀이 지난 5일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애들아, 노~올라' 어린이날 행사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놀이 참여하고 있다. 강보배 수습기자

총장 없어 업무공백 우려

최치규 총장직무대리 체제로

지난 1일 취임 예정이었던 제8대 제주대총장임용이 무기한 지연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총장임용인사발령이 있을 때까지 최치규 교무처장이 총장직 직무대리체제로 대학을 운영하게 된다.

제주대는 지난 1월 23일 있었던 총장선거의 결과에 따라 강지용(산업응용경제) 교수를 1순위로, 고충석(행정학) 교수를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추천 후 3개월이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총장은 임용되지 않았다.

교수지원과 관계자는 “총장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교과부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했다”며 “현재 대학자체에서는 왜 임용이 늦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신원조사 결과 특이 사항에 대한 인사검증 미완료 등을 이유로 검증과정이 지연되

고 있음을 대학에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주대에 직무대리를 추천하도록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고경표 교수회장은 “민주적 선거 절차를 거친 후보자임용을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하루빨리 총장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회 차원의 성명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치규 총장직무대리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상황에 동참할 심정일 것”이라며 “직무대리체제동안 대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말했다. 특히 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사운영의 연속성에 중점을 둘 것이며, 기한이 시급한 중요사안의 경우 학부회의와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선정

1만명 이하 대학중 전국 1위... 학생충원율·장학금 등 고평가

제주대학교가 2년 연속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제주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9년도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돼 41억2,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재학생 5000명 이상 1만명 이하 22개 선정대학 중 최고로 많은 금액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9학년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로써 제주대는 지난해 신설된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국고보조금 8억4,200만원을 받은바 있으며 올해는 재학생 1만 명 미만 지방대 중 전국 최고로 많은 금액인 41억2,9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장학금, 취업 지원, 국제화 지원, 산학협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용 된다. 특히 경기 불황, 고용사정 악화를 감안해 졸업생 및 재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와 장학금에 높은 비중을 두고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9년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고 정량적인 지표로 구성 공식에 의해 지원 대상 대학과 금액이 결정됐다.

해당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률, 1인당 교육비, 국제화 수준으로 구성되고 있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들의 변화와 혁신 노력에 따른 다양한 성과들이 교과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제주대가 지향하는 발전 전략에 따라 대학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용복 대기자

제7회 JEBS영상제 개최

23일 법정대중강당에서

올해로 7회째를 맞는 JEBS 영상제가 오는 23일 오후 5시 법정대중강당에서 열린다.

언론출판센터 교육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이번 영상제는 ‘꿈’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영상인들의 작품들을 받아 본선 작품들을 시연하고 시상할 하게 된다.

본선 행사는 교육방송국에서 준비한 오프닝 영상과 브릿지 영상, 작년 대상작품과 예선을 거친 참가자들이 영상이 상영되고 로망스의 축하공연으로 이뤄진

다.

이번 영상제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객들이 직접 심사하는 관객상이 생겼고, 서울-제주 왕복항공권, USB, MP3 플레이어 등의 경품들이 마련돼있다.

시상은 ▲최우수상=총장상과 상금 70만원 ▲우수상=총장상과 상금 40만원 ▲관객상=총장상과 상금 10만원이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754-2284 또는 교육방송국 홈페이지(cetbscheju.ac.kr)로 문의하면 된다.

6일부터 교류수학 수강신청

하기계절 수업 국내대학 교류수학 수강신청이 대학별 일정에 따라 이뤄진다.

하기계절 수업은 본교 재학생 및 학술교류 협정대학 소속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6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소속 학교로 신청을 하면 된다. 하기계절수업 국내대학 교류수학 수강 신청자는 하기방학기간을 이용해 타 대학의 강의를 수강하고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2009학년도 1학기에 OCU과목을 초과수강한 경우는 초과된 학점만큼 계절학기 이수에 제한이 있다. 신청 후 휴학, 수확포기 등으로 인해 교류수학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소속 학교로 신고를 해야 한다. 학점인정과 관련해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되며 전공·복수전공·교과과목 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소속 학교로 문의해야 한다.

▲대학별 신청 마감일정은 △경상대△전남대△전북대=5월6일△숙명여대△한국외대=5월13일△창원대=5월19일까지 이다.

이 외의 교류대학의 수강신청도 일시가 확정되는 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또 수강료와 폐강공고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대,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전국 1위’

올 한해만 41억 2,900만원 지원 확정

제주대학교가 또 ‘일’을 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2009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재학생수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4년제 대학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함으로써, 올 한해만 41억2,9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해인 “2008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도 재학생수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4년제 대학 중 ‘전국 1위’를 차지, 8억4,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의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수도권 특성화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취업률·재학생 충원율·국제화 수준·전임교원 확보율·1인당 교육비·장학금 지급률을 객관적·정량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이뤄졌습니다. 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JEJU



학문, 진리, 탐구



햇불, 정의
[교육·연구·봉사]

1952 개교년도



University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생리공결제, 다른 용도로 악용사례 늘어

제도에 '공감' 하면서도 암체죽엔 '반감'

‘생리공결제’가 일부 여학생들의 오남용 문제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돼 온 생리공결제는 생리통이 심한 여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생리통으로 고통 받던 여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그러나 생리공결제가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인문대 한 학생은 “과제가 밀려서, 전공수업이 아니거나 하루 빠져도 진도를 따라가기 벅차지 않은 수업은 생리공결을 내고 빠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저녁 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다음날 1,2교시에 나가기가 힘들어 생리공결을 낸 적이 있다는 사례와, 공감 시간이 길어 생리공결을 내고 수업을 빠지는 학생의 사례도 조사됐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생리공결제의 오남용사례를 알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 추세이다.

홍성민(전기공학 3) 학생은

“여동생이 있는데 생리통이 심할 때는 매우 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도가 악용되지 않게 개선돼야 하지만 생리공결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경하(철학 4) 총여학생회 부회장 역시 “오남용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생리통은 아픔이므로 일일이 분류하기가 힘들다”며 “공결문을 받으러 오는 여학우분들께 오남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으나 그 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양대의 경우 생리공결제의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한양대는 생리공결을 내기 위해서 3일 이내에 신청서와 함께 생리통이라는 병명이 적힌 진료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료소견서는 산부인과를 포함해 한의원, 내과 등 모든 병원에서 받아올 수

있으며 한 학기당 한 번만 내면 된다. 또한 한양대의 생리공결제는 공결을 제출한 이후, 20일의 주기를 뒤 20일 전에는 공결을 신청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픈 학생에게만 공결을 적용하기 위해 하루의 모든 수업을 빠질 경우에만 생리공결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대는 주기를 두지 않고 한달에 한번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는 생리공결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부의 학생들 때문에 선의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므로 생리공결제도를 현행보다 강화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한양대의 사례가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전 수업을 빠질 경우에만 공결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오전에 아팠다가 오후에 나아서 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양한 대안을 총여학생회에서 정식으로 제시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제도 보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성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혜경(사회학과) 강사는 “교수들이 생리공결제의 취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생리공결제 정립을 위한 교수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지성인으로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이를 권리로 인식하여 잘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조매경(건강증진센터) 간호주사는 “생리통으로 센터를 찾는 학생 중 더 쉬라고 권유해도 수업이 있다고 참고 가는 학생들이 있다”며 “생리통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빠지는 학생의 경우 다음 수업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제물을 내는 방식 등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희 수습기자

제7대 고충석 총장 이임식 열려

‘재일본제주인센터’에 발전기금 이천만원 기탁

“제주대는 내 인생의 정체성, 작지만 강한 우리 대학에 도전들이 희망을 가져야 한다.”

제7대 고충석 총장 이임식이 지난 달 29일 아라뮤즈홀 1층에서 열렸다. 본부 보직교수를 비롯한 내·외빈과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했다. 지난 4년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업적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꽃다발증정 △약력 및 업적 소개 △총장 재임록 증정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축사 및 기념패 증정 △이임사 △교과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임식에 참석한 임동철(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총북대 총장은 “고충석 총장은 ‘매란국죽’ 중 ‘국화’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기가 그윽하고 절개도 지키면서 편 자리에서 시들어 말라버려질지언정 시들지 않는 게 제주도와 대



지난달 29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제7대 고충석 총장이임식에서 교직원 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학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고 총장을 닮았다”고 말했다.

고충석 총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4년의 임기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위해 노력한 영원히 기억될 순간들이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지연되

고 있는 총장임용이 서둘러져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늦어지는 총장 임용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한편 고충석 총장은 이임식에서 재일본제주인센터 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김현숙 수습기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12억여원 투입... 우레탄 육상트랙도

지난달 29일 종합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 지난해 11월부터 총 사업비 12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사업’에 추진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 종합운동장은 인조잔디축구구장(68m×105m)1개소, 우레탄 육상트랙 100m 400m 각 6레인, 투포환던지기, 멀리뛰기 및 3단 멀리뛰기, 씨름장 등이 조성됐다. 또한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명탑도 설치되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시설과 관계자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허용 기준임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새롭게 조성된 대운동장 잔디구장에서 법정대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 공간 마련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새롭게 문을 연 종합운동장의 이용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는 5월 중순쯤에 공지 될 예정이다. 강보배 수습기자

해양학술제 취업박람회 개최

‘해양 학술제 및 해양산업 취업박람회’가 지난 1일 개최됐다. 이 행사는 해양과학대학교 친환경해양산업 뉴프론티어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공동 주최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해양 학술제 및 해양산업 취업박람회는 저평가되어있는 해양과학대학의 이미지 쇄신과 도 내·외 관련 업체의 홍보를 위해 진행됐다.

해양 학술제에서는 해양대 내 7개 학과의 기자재 시연회와 9개 소학회의 작품 및 활동 전시회가 이어졌으며, 제 5회 해양 올림피아드 과학 경시대회 시상식과 전날 있었던 양식농치품질평가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누리사업단 관련자는 “이번 학술제와 취업박람회는 현장 실무자에게 모의면접을 보고 기업환경을 접해보는 등 해양과학대학의 학생들에게 도 내·외의 취업환경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됐다”고 말했다.

U캠퍼스 ‘반쪽’ 전략

건물 실내에선 연결 안돼 답답

U캠퍼스 구축 4년, 그러나 무선랜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U캠퍼스는 대학 구성원들이 노트북과 PDA, 핸드폰 등 무선 단말기를 통해 학내는 물론 전국 어디서든 학사 행정 및 도서관 서비스, 웹 메일 등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우리학교는 무선랜을 사용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나 정보통신원 홈페이지에 ‘U캠퍼스 무선랜 아이디어’를 신청한 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U캠퍼스의 말이 무색하게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인터넷의 잦은 끊김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김민형(스토리텔링학과) 강사는 “강의 대부분이 영상강의라서 노트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인터넷이 안되거나 자주 끊겨 강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며 “무선인터넷은 어디서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주는 게 목적인데 생각되는데 정보통신원에 이런 문제점을 문의

했더니 야외에서만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다고 해 의아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원 U캠퍼스 담당자는 “처음 U캠퍼스를 구축할 때 건물 내부까지도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외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상태”라며 “현재 인터넷 문제에 대해 불편점이 자주 제기된다면 다시 KT에 A/S를 요청하고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수습기자

직능원, DVD실 운영

직업능력개발원이 무료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DVD’실을 운영한다. DVD실은 아라뮤즈홀 내 3층에 설치됐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6

시 중 이용 가능하다. DVD실에는 18대의 DVD플레이어와 19인치 LCD모니터, 스피커를 구비해 놓았으며 DVD강의와 함께 강의 교재도 비치돼 있어 학생들이 편

리하게 수강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DVD실이 독서실 같은 내부 분위기로 학생들에게 좋은 공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좋은 장소에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용희 수습기자

학생회 행사

동아리 연합회

행사: 농촌봉사활동
장소: 안덕
일시: 5월 21~24일

행사: 대표자회의
장소: 학생회관 시청각실
일시: 5월 15일

인문대학

행사: 진양제(체육대회)
장소: 대운동장, 한라터
일시: 5월 6일~7일

생명자원과학대학

행사: 생목제전(체육대회)
장소: 대운동장, 한라터
일시: 5월 14일~15일

공과대학

행사: 체육대회
장소: 대운동장
일시: 5월 11일 ~ 12일, 11일 9시 개막식

행사: 농촌봉사활동
장소: 표선 세화리
일시: 5월 20일~24일

경상대학

행사: 농촌봉사활동
장소: 신도리
일시: 5월 21~24일

행사: 어버이날 독거노인 봉사활동
장소: 신도리
일시: 5월 8일

학생회 행사를 접수 받습니다.

제주대신문사에서는 각 학과와 단과대, 중앙운영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들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의 ‘학생회행사’란에 대학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알릴 여러가지 내용들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제주대신문사 편집국 = 754-2279

제 29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 출판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5년을 맞이하여 제 29회 백록 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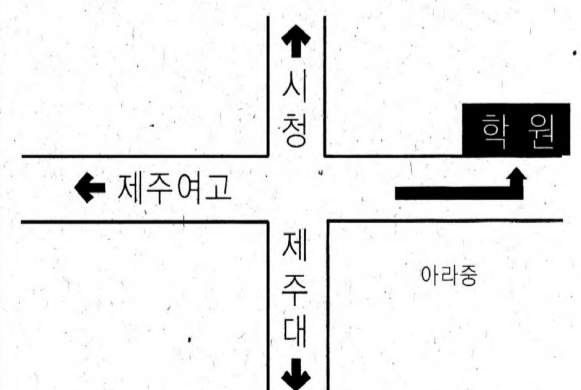
- 응모자격: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응모분야: 시(1인 5편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 접수마감일시: 2009년 5월 18일(월) 18:00까지
- 접수장소: 언론·출판센터 행정실(직업능력개발원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USB)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 발표: 제주대신문 818호(2009년 6월 3일 발행 예정)
- 시상내역: 당선작 (50만원), 가작 (30만원)

※ 단. 작품 수·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 함.

운 전 면 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모두의 자산' 도서관 서적 훼손 심각

책 뜯어가고 낙서하고

도서관의 도서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 빼곡하게 밑줄을 그어놓는 것은 물론, 군데군데 낙장이 많아 책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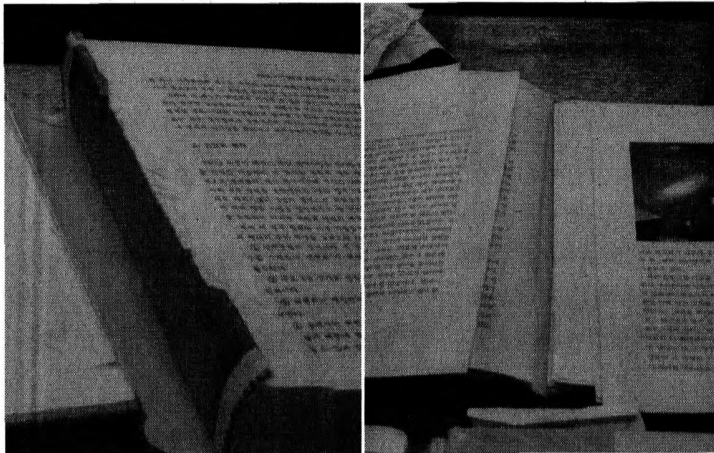
이정국(생명공학부 4) 학생은 “도서 훼손 문제가 심해 도서관 자료를 잘 이용하지 않게 됐다”며 “책 훼손이 심해서, 테이프로 붙이는 등 직접 수리해 반납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훼손된 도서는 이용률이 높고, 오래돼 책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용자들이 찢거나 훼손시킨 경우가 더욱 많다. 특히 사진자료가 많은 미술책이나, 자격증 관련 문제집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서적의 표지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서적 중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본을 맡겨 수리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수리가 불가능할 만큼 훼손이 심한 도서의 경우 폐기를 목적으로 별도 분류해둔다. 전공서적이거나 관련 도서의 경우

개정판을 구입하는 등의 방안을 택하지만, 소설이나 에세이 등 소관 인쇄된 후 절판되는 일이 잦은 문학작품의 경우, 훼손됐을 때의 대처 방안은 사실상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도서관 내부에서도 도서 훼손은 이뤄지고 있다. 도서를 대여한 후 훼손해 반납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책을 분철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학생들까지도 적지 않다. 비좁은 공간의 활용을 위해 뽁뽁하게 놓인 서가 사이는 도서관 내부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분철되고 남은 표지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난방지 테이프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도난방지 테이프는 장당 200원선으로, 서적의 모든 페이지에 사용하는 것은 도서관의 예산상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도서 한 권당 한 장, 두께가 두껍거나 가격이 높은 도서의 경우 두 장 가량 사용하고 있는 실정



도서관 측에서 모아둔 이용자들의 의식부재로 인해 심하게 훼손돼 도서관 서적들.

이다.

도서 훼손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강릉원주대 학원 캠퍼스에서는 도서 대여와 반납 업무를 직원 한 명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등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내의 도서훼손이 적지 않은 제주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도서관 측은 사각지대를 줄여 훼손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으로 CCTV를 설치하려 노력하는 중이지만 예산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아무도 읽지 않아서 새 책 그대로 꽂혀 있는 것보다는 도서가 훼손된다고 해도 한명이라도 더 읽어주는 게 낫다”며 “그래도 모두가 함께 읽는 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조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로마나 수습기자

문화교류관, 오는 9월 착공

최종설계안 확정... 2010년 12월 완공

일본에 사는 제주인의 이민과 개척사를 연구하고 교포 3·4세에 언어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계획 중인 문화교류관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대는 오는 9월 정문 인근 감귤화훼센터 옆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578㎡(1084평) 규모의 문화교류관 건립 사업을 실시한다.

제주대는 설계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전문설계 업체가 문화교류

관 기본설계 안을 대학에 제출한 뒤 3차례의 수정보안을 거쳐 변경한 끝에 지난달 17일 최종설계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문화교류관은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가업을 일군 1세대 이민과 개척과정을 담은 전시시설과 연구시설, 박물관을 갖추기 위해 착공된다.

또 언어 및 문화교육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민 1세대 후손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장

기 체류하면서 체계적으로 말과 글, 향토 문화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립사업비 35억원을 쾌척한 김창민 회장의 기부정신을 받들어 김 회장의 인생철학이 담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주인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김창민 기념관’도 설치된다.

이 밖에도 현재 본관 3층에 위치한 제주대 박물관의 소장유물도 이곳으로 이전된다.

정용복 대기자

제주다민족문화제 개최

제4회 제주다민족문화제가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의 주최로 오는 29일부터 3일간 칠성로 거리에서 열린다.

세계인의 날과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기념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각 나라 이주민이 주체가 돼 대학생과 일반인 등 도민들과 함께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서로 알아가고 체험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 몽골, 미국, 베트남, 중국, 캐나다 등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사진전시회와 이주노동자 영화제 각 나라의 전통춤과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본관(왼쪽)과 교양동(오른쪽) 화장실 문들이 심하게 벌어져 화장실 내부의 사람이 보이는 등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교양동 화장실 시설 '불량'

교양동과 본관의 일부 화장실이 부실한 시설로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단과대학 건물에 비해 다양한 대학구성원들의 사용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학생들은 너무 넓은 문틈과 부실한 잠금시설로 인해 차라리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단과대 화장실 등 타 건물 화장실로 발길을 옮긴다.

교양동 화장실에서는 칸막이 사이의 문틈이 너무 넓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생긴다. 서은영(미술 1) 학생은 “수업이 많아 자주 이용하지 않지만 화장실 칸막이 문 사이의 틈이 넓

어 사람들이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곤 했다”고 말했다. 본관 화장실 또한 이용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다.

김미래(국어국문 1) 학생은 “칸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하지만 화장실 칸막이 문틈이 너무 벌어진 것 같다.”며 “심한 곳은 안밖의 사람 얼굴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 곳도 있어 화장실 이용에 불안한 적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설과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조치는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화장실 문틈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수습기자

'잠자는 우리 뇌' 특강

지난달 29일 학생회관 2층 시청각실에서 제주국학원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주관으로 '잠자는 우리 뇌를 깨우자' 주제의 특강이 열렸다.

특강은 최현철 뇌호흡 교육본부 팀장과 진민정 국학원 실장의 지도 하에 1.2부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 최현철 교육본부팀장은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한 학생들과 주회 측 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동작들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강연에서는 뇌교육 창시자 소개와 함께 뇌교육의 효과 및 사례 등 뇌교육의 중요성

을 알렸다.

김민정 팀장은 “이번 강의는 뇌활용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교육과정의 기초를 알려주고 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든 자리”라며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제주대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와 주어서 기쁘다”라고 했다.

허민지(경영정보1) 학생은 “처음 강의를 들으러 자리에 앉았을 때는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였으나 강의를 시작하자 그 어색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친숙하고 재미있는 분위기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며 “다음에 이런 강의가 있으면 또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제5회 의류학과 천연염색 전시회

'제5회 의류학과 천연염색 동아리 고운색 전시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동안 자연과학대학 2호관 1층 로비에서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천연염색을 한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으며, 직접 구매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또한 소독과 치자를 이용한 천연염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됐다. 흥안나(관광경영 2)학생은 “예쁜 천연염색제품들을 구경도 하고 직접 천연염색 체험을 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다”며 참가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

는 고운색 동아리가 다음해부터는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예산 지원을 해주던 아열대친환경농부사업단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인체건강에 유익한 천연염색 소재 및 웰빙 의류제품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의류산업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원해왔으며, 매해 4월 마지막 주에 행사를 진행해 왔다.

강보배 수습기자

인터뷰 - 한국인 첫 '윈센메달' 수상 송필순 석좌교수

"자연과학에 관심과 사랑을"

광생물학분야 세계 최고 권위상

송필순(생명공학부) 석좌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광생물학분야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윈센메달 수상자로 결정됐다. 윈센메달은 IUPB가 관장하는 광생물학 분야 최고의 영예로 사료되는 상으로, 광생물학분야의 최우수 연구업적을 인정한다. 송 교수를 만나 광생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광생물학은 생물체와 광선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분야로 상당히 보편적인 분야이다.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송 교수는 광생물학이 가지는 우리 삶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요즘 활용되고 있는 LED 조명, 피부암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술 등을 비롯해 광합성, 반딧불까지 모두 광생물학 분야에 포함된다.

송 교수는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미국에서 연구를 해왔다. 현재는 주로 미국에서 연구했던 것들을 기초로 응용 쪽으로 연구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현재 송 교수가 가장 힘쓰고 있는 분야는 ‘잔디 개발’이다. 송 교수는 “잔디는 그늘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잔디를 개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친환경적인 잔디품종 개발 연구와 잔디 뿐만 아니라 암흑회피 반응으로 인한 식물들의 피해에 대한 연구에도 노력중이라고 말한다. 송 교수는 지금도 남원 위미리에 마련된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송 교수가 수상하는 이번 윈센메달은 아시아에서 일본국적의 연구자 3명에 이은 4번째이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광생물학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광생물학자의 수는 일본의 25~3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연구 시작의 시기도 우리가 훨씬 뒤쳐진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일본에서 1930~40년대에 이미 활발히 연구를 벌였던 광합성 연구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윈센메달 수상에 대해 “내 분야 최고의 영예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다”며 “특히 제주대 구성원으로 있을 때 받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 업적들은 혼자 이룬 게 아닌 여러 사람들의 기여를 함께 이어진 것”이라며 공동연구자를 비롯한 함께한 연구진들에 대해 그 공을 돌렸다.

송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을 선호하지 않는 세계적인 경향이 매우 안타깝다”며 “생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자연과학에 애정을 갖고 보람을 느끼며 공부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자연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향상을 위해 학교 차원의 지원과 격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윈센메달 시상상은 독일의 Duesseidorf에서 6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다.

김현숙 수습기자

"장애인학생 편의시설 최대한 확충"

제29회 장애인의 날 행사 간담회서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센터에서 '제29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진권 학생처장(교육학과 교수)과 각 대학 학생회 등이 참여해 모범장애학생 시상과 기관장과의 대화가 이

뤄졌다. 모범장애학생 시상에서는 김동기(행정 4)학생이 공로 우수상을, 강윤미(국어국문 2)학생과 고금자(사회 3)학생이 성취 우수상을 시상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기관장과의 대화에서는 장애학생들의 교통편의에 대한 불편

과 장애인 경사로 앞 주차문제, 장애학생센터 홍보부족문제 등과 같은 여러 장애학생들의 불편사항이 논의됐다.

양진권 학생처장은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부분에서는 신속히 해결을 할 것”이며, “장애학생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경남 총학생회장(건축공학 4)은 “경사로 앞 주차문제나 장애인용주차공간에 불법주차문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견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승훈(행정 3)학생은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행사를 열어주는 학교 측에 감사하며, 장애학생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수습기자

제2회 '양식넙치 품질평가 대회' 열려

워크숍과 품질평가대회 동시에

'제2회 양식넙치 품질평가대회'가 지난달 30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과 글로벌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해양양식산업뉴프론티어전문인력양성사업단 양식넙치품질인증센터와 제주도 해수어류 양식수산업 협동조합의 주최로 '양식넙치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더욱 발전하는 미래 전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워크숍과 2부 품평회로 구성됐으며, 1부 워크숍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2부

품평회는 제주대학교 글로벌하우스에서 각각 진행됐다. 1부 워크숍에서는 이재희 교수(제주대 해양과학대학)의 진행으로 '우리나라 넙치 육종 연구 현황 및 전망'과, '넙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전략 방안',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넙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전략 방안'을 발표한 백은영 연구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넙치 수출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스키문화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하세가와 와타루 교토정보대학원대학 이사장

“제주와 제주대는 무한한 가능성 가지고 있어”

정책적인 면에 변화를 이루어야

재의 제주인을 취재하던 우리 취재팀은 교토에서 제주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교토정보대학원대학을 찾았다. 교토정보대학원대학은 일본 최초의 IT전문대학원으로서 지난 2006년 9월에 제주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지난해 11월 국제 화상강의를 시작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교직원들이 입구에서 우리 일행을 환영하며 맞아주었고, 학내 시설을 돌아본 후 하세가와 와타루 이사장을 만났다.

다음은 하세가와 와타루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

— 제주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눈이 반짝거리는 것이 이해롭게 보였다. 인상적이었다.”

— 제주대 이러닝센터는 어떠했는가

“이러닝 센터를 인상 깊게 보았다. 방송시설과 스튜디오 등 시설이 매우 잘 구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학교와의 컨셉은 조금 다르다. 교토정보대학원대학은 IT 전문대학원이고 IT부분에 실용적인 부분에 더 발전해 있다.”

— 외국인 학생 유치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학교의 총 학생수는 대학교의 경우 1500명, 대학원의 경우에는 120명 정도가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대학과 대학원을 합쳐서 100명과 150명 사이의 정도를 왔다갔다 한다. 대부분 중국 유학생이 많고 한국인의 경우는 적은 편이다. 한국 학생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자면 한국 자체에 일본의 많은 대학들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정보 전달 루트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아쉽다.

우리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다.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서 데리고 온다. 그리고 그 학생이 집을 구하는 것도 도와준다. 일본에서 집을 빌리려면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보증을 서 준다. 또 부설 학교가 있어 그곳에서 일본어를 가르친다.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 취업까지 알아봐준다.”

— 이곳 학생들이 일본에서 취업은 잘 되는가

“그렇다. 마침 오늘 기업설명회가 있었다. 불황에도 많이들 와서 다행이다. 지금 일본 경제는 많이 불황이긴 하다.

건축업의 경우는 7할정도, IT관련 업종도 2할 정도는 규모가 적어졌다. 향후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예측이 힘들다.

하지만 취업걱정 만큼은 없다. 일단 우리 학교에서 토크클래스에 들 정도면 졸업 1년 전에 직장이 이미 정해진다. 나머지도 졸업 후 3개월 내에는 능력에 맞는 취업이 된다. 1년 내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심한 불황이라 취직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도 2~3개월 내에는 반드시 취직이 된다. 불황임에도 이 IT업계는 취직자리가 많다. 가려고만하면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물론 우리 학교에만 국한되는 일이다. 우리 학교는 IT수준은 일본 최고이다.

컴퓨터 관련 업체 어디든 우리 졸업생이 있다. 졸업생은 3만8천명 정도이다. 이 중에는 일본 경기가 호황이었던 70~80년대에는 취직이 너무 잘 되서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졸업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우리학교 출신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닌텐도 최고의 게임 프로그래머도 우리 대학 출신이다. 슈퍼마리오의 핵심기술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 고급 시설을 유지하려면 등록금이 비쌀 것 같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큰 문제이다. 등록금과 장학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일반 사립대에 비해서는 싼 편이다. 학교의 컴퓨터들을 2~3년마다 바꾸고 있는데, 업체에도 우리 졸업생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싸게 구입하는 편이다. 우리 학교는 개발도상국 22개국을 지원하는데 199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우리 학교가 컴퓨터를 교체 할 때 이전 컴퓨터들을 이곳으로 보내고 그곳의 컴퓨터 교육을 맡기도 한다.

유학생의 장학혜택은 학생 출신의 나라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다르다. 경제 사



정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장학혜택이 많다. 특히 제주대의 경우는 자매결연 학교이기에 수업료의 40%를 장학금으로 처리해준다. 또한 등록금을 대어해주는 것도 한다. 빌려주고 졸업 후 갚아나가는 형식이다. 모두가 취직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학교만의 자랑이라 할 수 있겠다.”

— 제주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있다면

“제주로서는 IT를 통한 국제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주 내부의 인재육성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 우리와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제주를 글로벌화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우리 학교의 광고 홍보효과도 있다. 제주도와 이러한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제주대학교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리고 큰 이유는 제주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많은 권한을 가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제주 스스로 행정능력이 가능하기에 제주라면 공동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진행하기가 쉽다. 이러한 바탕이라면 제주도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IT대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본다.”

— 끝으로 제주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는 아시아에서도 가능성이 크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아시아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시야를 좁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 그것이 제주에 기여하고 아시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IT분야는 더욱 그렇다. 제주는 아시아 IT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2년 전 이쪽 업계의 사장단과 같이 제주대에 간 적이 있다. 그때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했다.

정책적인 면에서 변화가 되었으면 한다. 제주에는 카지노가 많다. 이 카지노를 공화 쪽에 모은 다든가 제주에 IT타운 등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특히 IT타운 사업단지는 면세 등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금이 있으면 일본기업은 진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IT기업들이 진출한다면 인구유입이나 고용창출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는 베트남과 중국 등에 실현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해주었으면 한다. 대학원생이 100명 정도 모인다면 직접 강연하러 갈 생각도 있다. 제주는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다.

작은 섬이기에 본국에 의지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스스로 발전해가는 자주적인 모습도 강했으면 좋겠다. 또한 여러 정책적인 면에서 리더가 되었으면 한다.”

이효형 기자

“눈높이를 낮추면 취직이 보인다”

경기 침체로 인해 2009년 2월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14만 2천명이 감소(전년대비 13.8% 감소)하였다. 청년층 실업심화,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이 늘어나면서 현재 고용상황을 반영하는 진조어 등이 등장하고 있다. 종전의 사오정(45세 청년) 오륙도(56세 넘으면 도둑놈)에서 이토백(20대 퇴직 한 백수) 삼팔선(38세까지 구조 조정) 삼초평(30대 초반에 명예퇴직) 등 새 유행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하여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는 등 대졸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 창의적 사고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획능력, 원만한 대인관계와 원활한 의사소통 및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구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A학점, 토익 800점 이상 등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이다.

우리 대학 취업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도 졸업생 취업 현황은 조사 중에 있지만 2008. 2월 졸업생 1,899명(취업 제외자수 178명 미포함) 중에 취업 1,134명(59.7%)과 미취업 765명(40.3%)이다. 취업자 중에서 도의 취업자가 320명, 도내 취업자가 814명 72%를 차지하고 있다. 미취업자 765명 중에 국가고시 및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669명으로 87.4%로서 대부분이 아직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과감히 외부(도의) 기업 취직에 도전이 필요하고 자기개발과 진로탐색 준비가 안되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취업을 위한 4가지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면접공부를 충실해야 한다. 기업들의 신규채용 시 면접비중이 50%이상(사실상 당락 결정) 차지하고 있다. 실례를 들면, 직능원의 해외 인턴십 선발과정에서 A학점, 토익 점수 850점 이상으로 스펙은 좋지만 면접에서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 못하고 지원동기 등 영어로 말을 못하여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다.

둘째, 사회봉사·인턴경험 등을 쌓아야 한다.

기업에서는 사회봉사 인턴경험

등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은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 자기소개서 작성을 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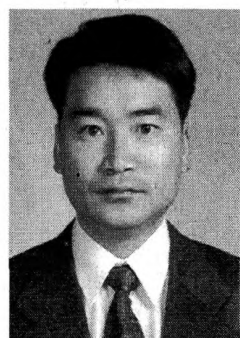
우리 학생들 소개서 작성에는 공통점이 있다. 가족의 뒷날 몇몇의 장남(여)로 태어나 집안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등 기업체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읽어 보지도 않는다. 내용을 두괄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소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넷째,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대기업, 공기업 및 공무원시험 등에 2~3회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에는 약 20만 구사능력 등이다. 즉,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A학점, 토익 800점 이상 등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이다.

우리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인·적성 검사, 사회봉사활동, 인턴십, 개인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잡 카페를 개설하여 채용정보, 각종 수험서 등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매주 월요일은 모의 면접을 통하여 면접 클리닉을 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미취업 졸업생과 학부모를 초청하여 취업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도전과 열정이 필요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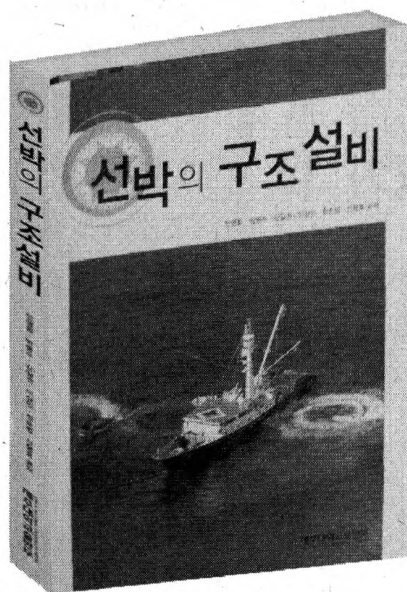
김문규 제장

직업능력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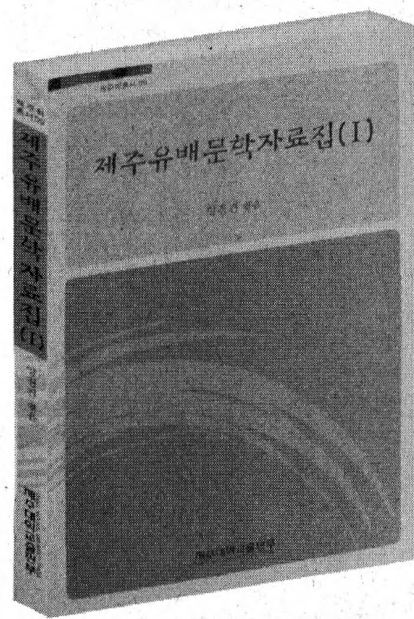
제주학 총서 모음

선박의 구조설비

인류문명의 발전지는 모두 큰 강이나 바다와 인접한 수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오랫동안 인간이 강이나 바다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기구가 곧 배이다. 따라서, 배는 인간과 비인간을 연결해주는 매체로서 원시시대 동나무배에서부터 현재 최첨단 원자력선에 이르기까지 배의 발달과정이 인류역사의 발달과정과 맥을 같이한 만큼, 인간과 바다 그리고 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하여 왔으며, 오늘날 전세계 무역량의 약 90%와 해양수산업이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영학 · 박병수 · 강일권 · 이상민 · 정순범 · 신철호 공저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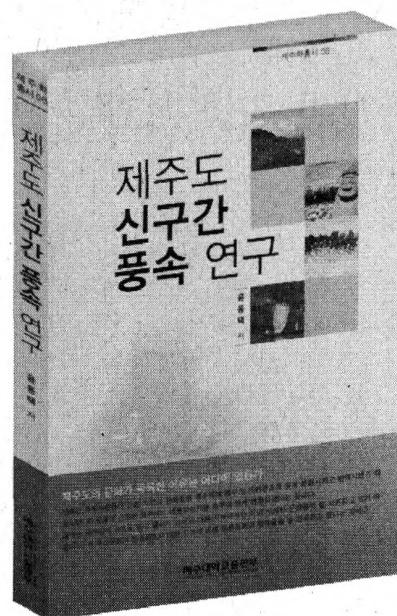


제주유배문학자료집(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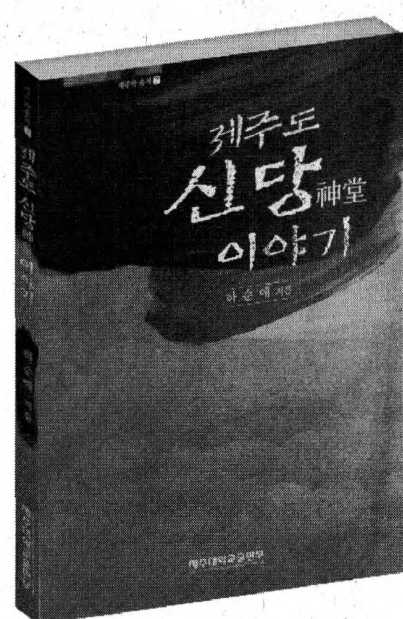
필자가 “유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주유배문학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삼다 돌아가신 선친때문이다. 그러나 형상이 게으른 탓에 그 관심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한해 빈틈없는 것이 필자의 정열과 선친의 그것이 다른 때문이라고 변명도 해보지만 그럴수록 겸연쩍음만 크다. 연전에 필자의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 제주유배열전-” (문학과지성사, 1999)이 출간되면서 과연 몇이나 읽을지가 우려했지만 기대와 달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도의 문화가 독특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제주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문화들을 흡수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에 맞게 변화시키고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즉 문물의 근원은 외부에서 비롯되었지만 제주에 맞게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주섬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진 문화들이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문화의 집결체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문화의 원형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윤복 저 | 12,000원



제주도신당이야기

신당은 제주의 사람들이 일에서 인으로 전환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제주인의 삶과 문화로서 집합해 놓여있는 장소이다. 각 신당마다 그 역사가 다름이런데, 신당에는 시간이 아주 두껍게 내려앉아 있다. 신당에 쌓인 시간의 두께를 어떻게 가늠할까? 이 책은 신당에 쌓인 두꺼운 시간을 헤치고 다니기 혹은 시간을 말해준다. 따라서 <제주도 신당이야기>라는 제목을 달기는 했지만, 이 책은 신당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신당들은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소재에 다름 아니다. 이 책에서 신당이 씨줄이려면 날줄은 제주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이다. 또 신당이 날줄이라면 씨줄은 사람살이, 세상살이에 대한 정철이다.

유승재 저 | 13,000원

제주대학교출판부

CHEJUNATIONAL UNIVERSITY PRESS

루앙대학 이사벨룰루 교수 초청 강연

프랑스 문화 소개부터 한국 문화 발전까지

‘프랑스 · 한국 문화 교류의 중요성 비전’ 특강



지난 2007년, 제주-루앙대학 교환프로그램으로 제주대를 방문한 루앙대 학생들이 다도를 배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자연과학대학 1호관 세미나실에서 프랑스 루앙대 이사벨룰루 교수가 〈프랑스-한국 문화 교류의 중요성과 비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제주대와 루앙대의 자매결연에 따른 교수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두 대학은 교수 교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2005년을 시작으로 매해 홀수 해는 루앙에서 제주로 학생을 보내고, 짝수 해는 제주에서 루앙으로 학생을 보내며 학생 간 교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홀수해인 올해 여름에는 루앙대 19명의 학생이 제주로 올 예정이다.

이사벨룰루 교수는 교환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며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외에 개인적으로도 서로 많이 친해져 단순한 교환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 간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져야 하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불어를 배워 내년에 루앙대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사벨룰루 교수는 강의를 진행하며 전반적인 프랑스 문화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과거 ‘누벨바그’로 세계 영화사의 흐름을 바꿨고, 현재 세계 4대 영화제인 ‘칸 영화제’가 열리는 대표적 ‘영화 국가’의 학자답게 한국영화에 대한 애정과 찬사를 강의 내내 쏟아냈다. 다음은 강의 요약.

▲ 프랑스의 문화, 대학에 대해

프랑스는 지역적으로 유럽의 관문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 유로화를 2002년 갑자기 쓰게 됐는데 변화가 쉽지 않았다. 적응 못한 사람들은 쇼크에 빠졌다. 마치 중국, 일본, 한국이 갑자기 같은 화폐를 쓰게 된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유럽은 60개가 넘는 모국어와 공식어 23개가 있다. 프랑스는 이민자가 많아 불어와 게통이 다른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다. 프랑스 각 지방에서는 각 지역 고유의 방언이 쓰이고 있는데 소수방언지역은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무시당한다. 프랑스와 벨기에 케벡 등이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종교는 구교가 가장 많고 2위는 이슬람이다.

▲ 프랑스에서의 한국 영화

한국과 프랑스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예술, 음식을 좋아하는 것, 문화,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비슷한 점이 많다. 한국과 프랑스는 수교 120주년을 맞아 프랑스 전역에 한국을 알리는 행사가 많이 이뤄졌다. 이때 전공을 불어로 한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다. 불어를 사용해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영화에 많

이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프랑스와 달라 매력에 있다.

아시아 영화만을 모아 상영하는 유럽 유일의 국제영화제인 도빌 아시아영화제는, 이처럼 한국영화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수길 감독은 〈검은 땅의 소녀와〉로 그랑프리, 비평가상을 받았고, 2002년 송해성 감독의 〈파이란〉, 2001년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가 주요 상들을 수상했다.

브뤼셀 국제 아시아영화제에서는 노영석 감독이 상을 받았다. 루앙대 내에는 ‘아고라’라는 한국영화제가 만들어졌을 정도다. 2006년 아고라에서는故 신상옥 감독 회고전을 했다. 아쉽게도 신 감독은 회고전 직전 돌아가셨다. 임상수 감독은 직접 찾아와서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감독들은 열린 자세를 갖고 자신의 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객들과 대화한다. 그런 모습이 꽤 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인다. 사고가 닫혀있고 권위적이어서 대화가 힘든 프랑스 감독과 대조적이다.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하고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임권택 감독이다. 임권택 감독은 한국 전통적인 것을 자기 방식으로 해체한 후 영화적 언어로 재구성, 재해석한다.

세계적 거장이라 불릴만 하다. 임 감독은 〈취화선〉에서 조선시대 천재 화가인 장승업을 완벽주의자이며, 자유분방하고 과묵한 캐릭터로 그렸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성을 적나라하지만 아름답고 노련하게 다뤄 매력적으로 보였다. 임권택 감독은 영화를 통해 사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다.

김기덕 감독도 인기가 높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프랑스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다. 불교적 상징의 등장으로 프랑스인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철학적 부분을 제시하며 프랑스인들의 철학적 감수성을 자극했다. 또한 한국영화는 수준 높은 영상미로 프랑스 관객들의 입맛에 맞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경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이다. 프랑스와 한국은 사고, 문화 특히 영화 등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루앙대와 제주대의 교환프로그램은 그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용희 수습기자

프랑스의 영광은 ‘문화적 다양성’

한국과 프랑스 공통점 많아

한국 영화예술 독창성 돋보여

남을 이해하는 휴머니즘이 발달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철학을 알게 됐다. 국경없는 의사회처럼 ‘프렌치닥터’라는 각종 분쟁지에서 의료 봉사하는 단체도 있다. 프랑스의 모든 교육의 중심은 학생, 즉 인간이다. EU(유럽 연합)에 의해

회원 국가들 교류는 별도 심사 없이 자유롭게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유로운 대학 교환 시스템으로, 학생 간 교환 시스템인 ‘에라스무스’와 교수 간 교환 시스템인 ‘소크라테스’가 있다. 1999년 6월에는 유럽연합 간 교육체제를 통일하는 ‘볼로냐 프로세스’가 있었다. 이는 2010년까지 유럽연합이 교육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즉, 졸업장, 학위와 연합국 내 어느 곳에서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로써 프랑스는 중세부터 해오던 국가 교육 시스템을 바꾸게 됐다. 교육 체계를 바꾸는 전담 부서가 설립될 정도로 큰 변화를 거쳤다.

은 매력을 느낀다. 칸 영화제 등에서 한국영화가 많은 상을 받았다. 2003년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올드보이〉와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이 대표적이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도빌 아시아영화제에서는 ‘이창동 감독의 날’을 열었다. 이 감독의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등 그의 대표작들이 소개됐다.

또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가 대상(Le Lotus du meilleur film)과 비평가상(Lotus Air France)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양익준 감독을 새롭게 발견한 사건이었다. 한국영화는 특유의 감동

인터뷰 - 시인 도종환

“시를 읽으면 삶의 질 달라져요”



시인 도종환

“누구든 깨어 있는 감각을 가지고 살라”며 강연을 시작한 시인 도종환은 제주도와 인연도 각별하다. 충북 민예총과 제주 민예총에서 매해 정기적인 문화교류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다량위옴에서 진행되었던 4·3행사를 참관했던 것이 시인 도종환의 제주도에 대한 첫 기억이다. 제주도의 비극적인 역사가 마음에 밟혀 참 많이 울었다던 그는, 어떻게 해야 제주도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고민도 적지 않다.

타인의 슬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아파할 줄 알아서일까, 그의 시는 그림을 그리듯 섬세하다.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그는 본래 미술을 꿈꾸던 미술학도였다. 대학으로 진학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미술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로 진학하게 된 것이 그가 문인의 길로 들어선 첫 번째 계급이었다. 그는 글을 읽으며 의로움과 배고픔을 이겨냈다. 시를 읽다 보니 자연히 시를 쓰게 되었고, 시는 곧 그의 인생의 나침반이 됐다.

나침반이 그를 쉬운 길로만 인도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갔을 때, 그는 언제나 옳은 길에 서 있었노라고 회상했다. 힘들고 지친 길이라도, 지나고 보면 언제나 그것이 옳은 길이었노라고, 시는 그에게 있어 나침반이자, 등대였고, 인도자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깊은 고뇌와 사유의 시간은 불가

피하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사뮈엘 음산의 ‘청춘’을 추천했다.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을 가지지 않은 자는 스물이라 해도 청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며, 가지고 있다면 예순이 넘었다 해도 아직 청춘을 간직한 자라는 내용을 가진, 사뮈엘 음산이 칠순에 접어들어 적은 시였다.

“청춘을 간직하고, 늘 깨어있는 감각으로 살라는 것. 그는 깨어있는 감각으로 사는 것과 아름다운 것을 느끼며 사는 것의 본질적 차이점을 역설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슬픈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운 것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옳은 것을 옳게, 그른 것을 그르게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깨어있는 감각으로 사는 일이야” 아름다운 것만을 느끼는 것은 외려 깨어있지 못한 감각이라는 것이다.

그는 깨어있는 감각으로 살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사려 깊음이 필요하다”며 “교정에 피어있는 꽃을 잠깐이라도 바라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하늘의 빛깔을 잠깐이라도 음미하고, 좋은 책과 영화를 접하려 노력하고, 좋은 음악을 찾아 듣는 노력을 기울여야 감각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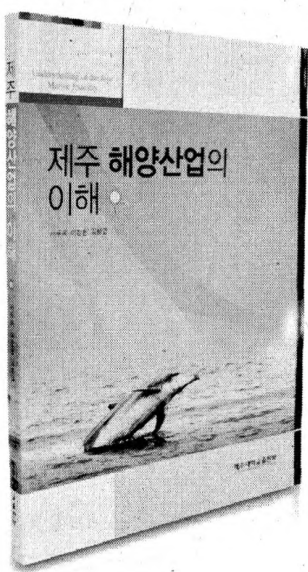
그는 문인답게 제주대학생들을 생각해 빛나는 꽃에 비유했다. 그의 눈에 비친 학생들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젊은 청춘이었다. “꽃이라고 생각해, 저마다의 꽃이라고. 장미가 제일 예쁘다, 해서 다들 장미 같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각각 동백, 벚꽃, 철쭉 같은, 과꽃 같은, 백합 같은, 들꽃 같은 아름다운 꽃을 다들 가지고 있어. 저마다 자기 향기와 빛깔을 갖고 있는 꽃 같아.”

깨어있는 감각으로 사는 일은 분명 쉽지 않다. 그는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으면 분명 인생은 편안하고 좋을 테지만, 어떠한 것도 힘들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며, “노력하고, 탐을 쫓고, 고생하며 성취를 이루라”고 이야기했다. 힘겹게 마음을 터놓는 꽃처럼, 저마다 한 송이의 꽃처럼.

김로마나 수습기자

2009 신간 모음

제주대학교 출판부
CH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 해양산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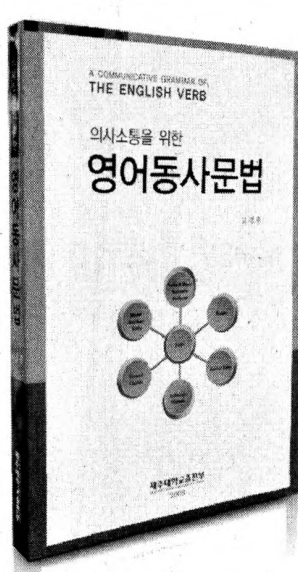
오늘날 세계는 약 6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2050년에는 약 92억 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식량의 부족, 생수부족, 에너지자원, 광물자원의 부족, 생활환경의 오염, 대기의 온난화, 해면 상승 등 인류의 생활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여러 가지의 무장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인의 관심이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곧 해양은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자원의 보고 특히 신재생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서두록 / 이창현 / 김병열 | 값 13,000원

제주현대문학사

이무의 서적 서술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법적 전제개념이 서술된 문학사는 제대로 서술된 문학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문학사는 문학사 서술에서 요구되는 방법적 전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제주현대문학사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누구에 의해 쓰여진, 완벽한 문학사는 쓰여질 수 없을 것이다. 단언컨대, 최소한 아직까지 그런 문학사는 쓰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책의 단점을 변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김병택 지 | 정가 15,000원



영어동사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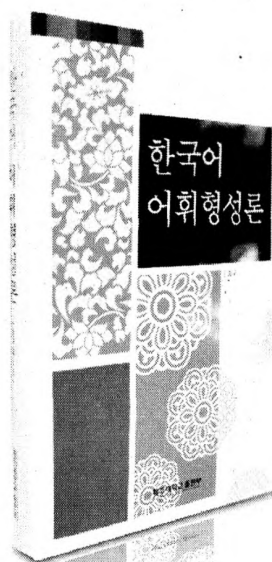
동사는 문장의 ‘핵’(核: core)이다.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갖가지 문장 구조 · 태 · 시간 관계 · 화자의 심적 태도 따위가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반드시 형태 · 기능 · 의미의 상호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 삼자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문법을 논할 수 없다. 이 책은 필자의 『실용영어문법해설』, 1권(2006 증보판)에서 동사, 조동사, 시제, 수동태를, 그리고 2권(2001)에서 부정사절과 동명사절 등 모두 여섯 장을 근간으로 하여 대학에서 영문법을 전공과목의 하나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크게 활용 · 설명하고 필요한 각주를 상세히 달았다.

고경환 | 정가 20,000원

한국어 어휘형성론

사람은 말과 글로써 사상(思想), 감성(感性)의 세계를 펼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릴 적에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반영된다. 또한 언어는 시대 변화와 사회 변화에 따라 생성소멸(生成消滅)한다. 그래서 인간은 필요에 따라 언어(語)를 만들어내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늘 대하는 말, 특히 어휘는 언어체계 내에 내재(內在)한 수많은 언어재(言語財)의 구성요소에 따라 어떤 일련의 원리나 규칙에 근거를 두어 많이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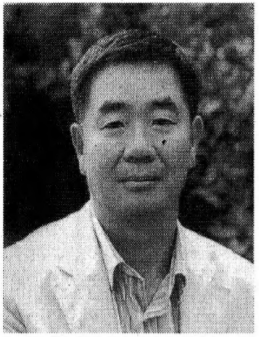
최규일 지음 | 정가 30,000원



◆ 돼지인플루엔자와 대처 방안

돼지인플루엔자 ‘사람과 감염’이 제일 문제

확산방지·추가환자 조기발견 주력해야



임윤규 수의학과 교수

0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독감’이 처음 유행이 시작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인류사회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Influenza virus는 A, B, C형이 있지만 사람과 동물에서 종간의 장벽을 넘나들며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으로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Influenza A virus이다.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에 의한 인명의 대량희생은 수십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근자에 발생한 H5N1 type의 조류유래독감(Avian Influenza, AI)이나, 최근의 H1N1 type의 Mexico 발 돼지유래독감(Swine Influenza)의 발생에 전문가들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연유도 발생의 역학적 측면에서 볼 때 시기적으로 예견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Pandemic은 표 1과 같이 몇 십년단위의 간격으로 Influenza virus의 유전적인 대변이가 일어나는 것에 기인한다.

Influenza virus가 동물세포에 침투하고, 증식한 후 배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haemagglutinin 및 neuraminidase라는 바이러스 표면단백질을 암호화하는 HA 유전자(16가지 type 존재) 및 NA 유전자(9가지 type 존재)의 대대적인 변이가 일어날 경우에, 비록 총칭하여 Influenza A virus라고는 하지만, 감염된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식된다.

Influenza virus의 대규모 유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변이하며 병원성과 숙주 선택성이 바뀐다는 사실과, 이에 관여하는 동물과 사람과의 감염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비단 Influenza virus뿐만은 아니나, 천연두나 소아마비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바이

러스는 해당되는 백신이 개발되어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Influenza virus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므로, 그 때마다 적절한 백신을 새로이 설계하여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백신을 정착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변이는 유전자 한, 두개 핵산이 바뀌는 소규모 변이(antigenic drift에 의한 mutation)와,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절이 통째로 교환되는 대규모 변이라(antigenic shift에 의한 reassortment)를 포함한다.

사람에 유행하는 Influenza virus와 동물에 유행하는 Influenza virus의 유전자의 분절이 교환되는 Antigenic shift가 일어날 때 ‘동물에서 사람에게’ 감염능이 있는 신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New Influenza virus)가 탄생할 수 있으며,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간’의 전파능을 획득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

Influenza virus의 대변이에 관련되는 HA와 NA의 모든 subtype들은 철새들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 AIV)로부터 유래한다(그림 2).

북방의 추운 지역의 호수 등에는 철새들의 분변에서 배출된 AIV들이 여름에도 생존하고 있으며, 따뜻한 지방에서 태어난 어린 철새들이 여름철에 다시 찾아간 그곳에서 새로이 감염되어 다시 따뜻한 지역으로 이주하며 Influenza virus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과 돼지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Influenza virus의 상호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돼지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탄생하였을 경우,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적응하여 사람간의 전염능을 획득하기가 더욱 용이한 것으로 짐작된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는 단계에서는 특수 조건에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한정되어 산발적인 감염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람간의 전염성을 획득하였으며, 그 속도가 빠르고 병원성이 강한 것이 증명된 이 시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번 유행과 관련하여, 돼지고기 섭취와 이번 SIV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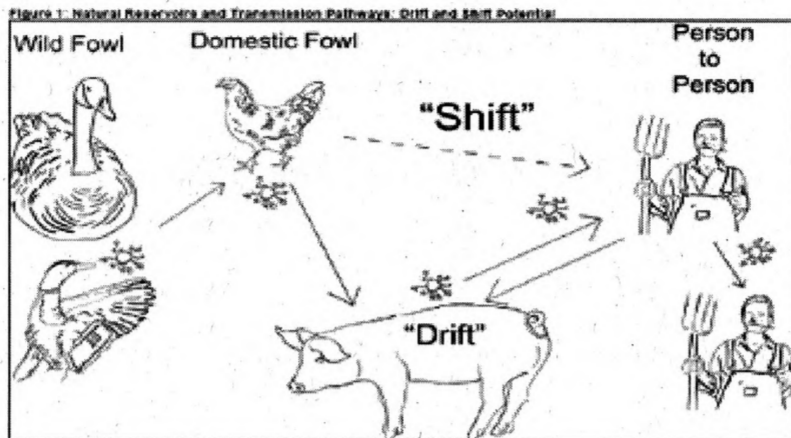


그림 1.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와 전파경로. wild fowl: 야생조류, domestic fowl: 가금류, shift: 유전자 대변이, drift: 유전자 소변이, person to person: 사람간의 상호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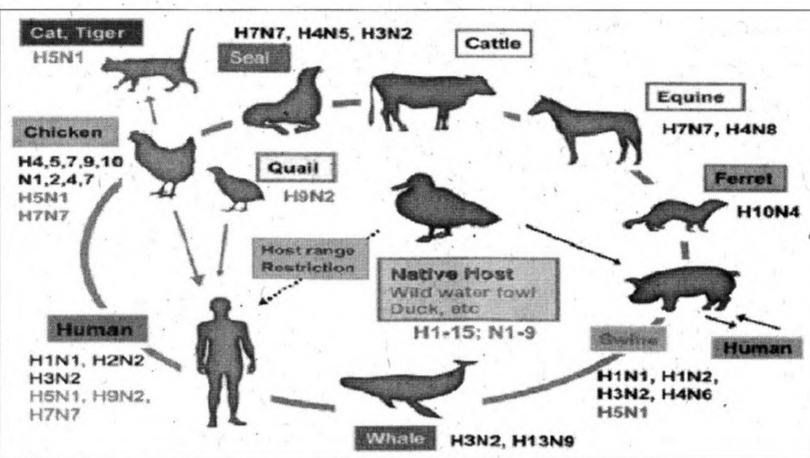


그림2. 각종 동물별 Influenza A virus 감염 type. 조류들은 인플루엔자 종류를 모두 가지고 있다.

표 1. Influenza의 세계적인 유행 기록

세계적 유행의 명칭	기간	사망자(백만명)	바이러스 subtype
Asiatic (Russian) Flu	1889-1890	1	H2N2로 추정
Spanish Flu	1918-1920	40~100	H1N1
Asian Flu	1957-1958	1~1.5	H2N2
Hong Kong Flu	1968-1969	0.75 ~ 1	H3N2
신행 Flu (?)	2009(?) -	?	H1N1

기 위하여, 먹어서는 감염되지 않으며, 익힐 경우 안심해도 좋다는 등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는 마치 돼지에 이미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여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 여운을 남기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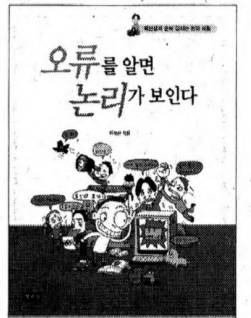
실로, 나에게 Influenza virus를 옮겨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신행 Influenza virus의 탄생 이전에 돼지가 관여하였지만, 그 전과는 바로 감염된 사람들이며, 이러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비록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감염자의 출입국의 감시가 가장 중요하고, 발병이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끝으로, AIV의 모든 type이 자연 상태에서 야생 오리류의 철새와 그들의 보급자리가 되는 호소에 영구히 존재하면서 돼지에서의 유전자의 재정렬(gene reassortment)에 관여하므로, 어떤 subtype의 HA와 NA도 추후의 신행 Pandemic influenza의 후보에서 제외시킬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권의 책

논리 속에 숨은 갖가지 오류



탁석산 지음, 책세상

내 나이 스무살, 이성보다는 감성이, 논리보다는 시적 감수성이 풍부했던 그 시절, 그래서 누군가는 스무살은 그냥 스무살이 아니라 아아, 스무살이라 했던가? 스무살에 대한 기억이 아련한 추억이면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아름다운 시절을 술한 오류와 편견 속에서 방황(?)했다는 자책감 때문이 아닐지, 그때 그 순간, 내가 옳다고 확신했던 것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순간순간 내가 내렸던 판단들이 사실은 착각이고 오류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었더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회한과 자책들은 지금도 가슴 한 편에 남아있다.

반성도 지나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법! 그러다 문득 내가 받은 교육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기 시작했다. 내 개인의 방황은 내 문제라기보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체계의 산물이라는 쪽으로 개인적 책임을 회피할 무렵, 그럼에도 역시 따지고 보면 문제의 원인은 개인에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인간이 적어도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환경을 탓하고, 개인의 선택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스스로를 동물이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캠퍼스라는 공간, 선생이라는 신분은 아까운 재주를 가지고도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아름다운 시절을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접하게 한다.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대화술은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어가는 글로벌 시대에 진정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덕목이다.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주제의 글인데도 유기적으로 잘 짜여진 글이 있는가하면 단순한 진술에 지나지 않은 글도 있다. 논리적인 글은 좋은 논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을 말한다. 즉 전제와 결론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긴밀한 관계란 결론의 참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전제와 결론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함을 말한다.

지은이 탁석산은 유기적인 관계를 전제와 결론이 관계가 있고, 전제가 결론의 충분한 근거가 되며, 제시된 전제가 참일 뿐만 아니라 결론을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을 미리 잠재울 수 있는 명제가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결론과 관계없는 전제가 등장해서는 안되며,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 꼭 필요한 근거가 빠져서는 안 되고, 전제들은 거짓이 아니거나 적어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반박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을 미리 생각해서 이것을 논증의 전제 안에서 해소해야 한다.

오류란 좋은 논증을 방해하는 것이다. 오류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복합적이고 진지하며 체계적인 논증이다.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오류를 알면 상대 주장의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 글쓴이는 오류들이 지니는 논증의 구조를 파악하면 논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동어반복의 오류, 복합 질문의 오류, 결함의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 흑백 사고의 오류, 원장본체의 오류, 발생학적 오류, 강조의 오류, 의도 확대의 오류 등등은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오류들이다. 나쁜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 우리 편 아니면 적, 너도 부패 했으니 나는 부패할 게 못된다. 부모가 변변찮아서 내가 이정도 밖에 안된다 등등의 사고는 대학 초년기에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오류들이다. 술한 오류에 빠져 자신의 참 가치를 못 찾는 학생들에게 탁석산의 이 책을 권하며 한 마디를 꼭 들려주고 싶다. “오류로부터 배워라, 그것이 그대들을 완성하리라!”

고은진 철학과 강사



당신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획·디자인에서 인쇄까지 ONE-STOP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신우기획 / 도서출판 신우

상담전화 (064) 746-5030

• 제주시 오라3동 2988-4
• E-mail: sw5030@hanmail.net

무론유설

편견·배타성 넘어 성숙한 사회로 가자



김재원 통영대학교 교수

누군가가, '야구(野球)'라는 운동을 두고 '봉구(棒球)'라고 우긴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신의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라 여기겠는가? 필자는 그 '봉구'라는 단어를 홍콩 스타TV 스포츠 뉴스의 자막을 통해 처음 대했다. 그리고는 "아, 중국에는 저런 구기종목도 있구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봉구'라는 운동은 바로 '야구'였다. 중국에 야구가 들어온 지는 일

마 안 되었지만 그 '야구'라는 운동이 들어 왔을 때, 중국인들에게는 '야구배트'가 가장 인상적이었기에 '봉구'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그 '야구'를 '베이스볼(baseball)'이라 한다. 그들의 눈에는 '야구'라는 운동의 특색이 '베이스'에 가장 많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베이스볼'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왔을 때 일본인들은 그걸 '야구'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일본을 통해 그 운동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야구'라고 하기에 그저 따라서 '야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그 운동을 '야구'라고 명명하게 된 데에도 매우 흥미로운 사회문화적 심리가 담겨져 있다. 야구가 일본으로 들어오기 전 그들이 하던 스모나 검도, 가라데와 같은 전통적인 운동들이 모두 작은 실내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운동들이었던 만큼, 일본인들이 '야구'라는 운동을 처음 대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야(野):드넓은 운동장'이었던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같이 넓은 대륙을 가진 나라들에게는 '넓은 운동장'이 전혀 인상적인 것이 될 수 없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 운동장이야말로 심리적 해방의 상징물처럼 보였던 것이다.

"뛰 눈에는 뛰 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뛰 눈에는 뛰 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면 늘 자신의 관점만이 정의인양 외치면서 걸핏하면 야구와와 베이스볼과, 봉구파로 분파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각 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서로 다른 점만을 들추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동을 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이러한 배타성이 있다

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 배타성 속에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상처를 입어왔고 다시는 그런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생존본능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견은 분명히 편견이다. 잘못된 것이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편견으로 인한 배타성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상대방을 조금씩 더 이해하려는 성숙된 사회로 가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편견이 점점 깊어지면서 상대방을 더욱 더 배척하는 분열적 사회로만 가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보자.

옛것에 조그만 다름으로 멀어진 친구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의 편견보다 자신의 편견을 먼저 스스로 고집내어 화해를 청해 보도록 하자. "사랑을 하면 알게 되리라. 알게 되면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돌하르방

'최악의 스토리텔링'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을 '리얼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다. '리얼버라이어티 쇼'는 극의 내용과 흐름에 대한 기본 골격이 있다. 골격 안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부딪치며 돌발상황을 만들어간다. 돌발상황을 재치와 순발력으로 수습하고, 다시 골격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유능한 진행자의 몫이다.

정책결정 과정 또한 '스토리 골격'이 존재한다. 정책은 세부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그 안에서 다양한 계층, 분야, 이해관계 등으로 엮인 캐릭터들이 부딪친다. 돌발상황을 제대로 수습하고 정책의 본질을 돌려놓는 것은 유능한 리더의 몫이다. 결정적으로 두 가지 공통점은 '과정'이 미디어에 의해 가공돼 대중들에게 보여진다는 점이다.

두 '쇼' 모두 결말보다 과정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느냐가 중요하다. <패밀리가 떴다>에서 아침밥을 먹는 행위보다 스타들이 아침밥을 만드는 과정을 재밌게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결정 과정 또한 대중들이 납득할만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결말도 대중들에게 설득력있게 각인될 수 있다. 현재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리얼버라이어티 쇼 '제주해군기지 유치기'는 최악의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았나 싶다. 그 근거로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바이블'로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물을 현실감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훌륭한 초상화가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재현할 때 실물과 유사하게 그리되, 실물보다 더 아름답게 그린다"라고 말한다. 대중들은 해군기지 유치과정에서 중심 캐릭터였던 제주도정이 누구보다 나은 존재이길 원했다는 것이다. '나쁜 존재'로서 제주도정은 민주주의에 입각해 설득과 합의를 통한 출중한 갈등관리자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민감응 상황은 '나쁜 존재'로서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배신감과 반발의 표현이다.

피해야 할 '플롯(소설, 희곡, 각본 등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줄거리)'을 피하지도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해야 할 플롯 중 하나로 "착한 사람이 행복하다가 불행해지는 것이 보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공포도 연민도 자아내지 않고 불쾌감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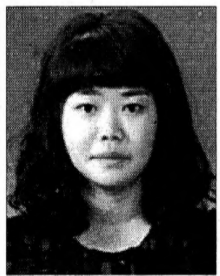
문이다"라고 말한다. 조용하게 지내던 강정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은 피해자 할 꼴을 피하지 못한 결과다.

제주도정은 '희극'을 원했을 것이다. 해군기지 유치가 제주도민을 위한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비극'으로 돌변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을 '우스꽝스러운 탈', '추하고 일그러졌지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희극을 의도한 스토리가 적지 않은 도민들에게 고통을 안겼으므로 비극으로 스토리텔링됐다. 제주도정은 무슨 의도로 '제주해군기지 유치기'를 스토리텔링 했던 말인가. 극을 보면서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이영운 특별기자

독자기고

'스승의 날' 단상



고유라 실과교육 1 선생님

이제 곧 스승의 날이 돌아온다.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게 될까? 스승의 날은 지난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스승의 날'을 다시 부활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촛잔 문제 등 비도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명목아래 '스승의 날' 행사가 소홀해지고 있다. 바람직할 스승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돈으로 오고가는 관계가 아니라 정으로 오고가는 관계가 될 수 있는 풍토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스승의 날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존경받는 스승의 상을 되살리는 것이 아닐까 한다.

최근 '스승의 날'에 쉬는 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스승의 날 교문을 열고 땀땀하게 학생들을 맞이하자는 분위기가 교사와 교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아직 비도덕적인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단다. 그러나 우리 모두 건강하 '스승의 날'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스승의 날에 정상 수업하는 그 날이 곧 돌아오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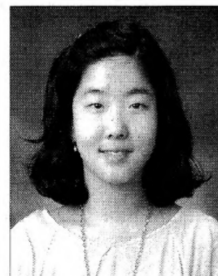
은 상황에서도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은 계속하여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오던 중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스승의 날'을 다시 부활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촛잔 문제 등 비도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명목아래 '스승의 날' 행사가 소홀해지고 있다. 바람직할 스승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돈으로 오고가는 관계가 아니라 정으로 오고가는 관계가 될 수 있는 풍토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스승의 날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존경받는 스승의 상을 되살리는 것이 아닐까 한다.

최근 '스승의 날'에 쉬는 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스승의 날 교문을 열고 땀땀하게 학생들을 맞이하자는 분위기가 교사와 교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아직 비도덕적인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단다. 그러나 우리 모두 건강하 '스승의 날'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스승의 날에 정상 수업하는 그 날이 곧 돌아오길 바란다.

독자기고

'세계치유의 섬' 어때요?



박애인 철학 1

09학번 새내기기는 무척 설레는 마음을 붙잡고 대학이란 문턱을 이제 겨우 넘었다. 파사로운 햇살, 4월의 계절은 우리 대학에서 시작되는 것 마냥 제주도 한라산이 원산지라는 왕벚꽃이 나를 축하해주고 있다.

왕벚꽃이 세계를 주름잡듯 제주대가 세계속의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적을까 한다. 첫째 대외적 이미지 개선, 둘째 대학의 경쟁력강화, 셋째 졸업 후 진로의 문제이다. 이제 가지를 한겨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 하고 부모님 이하 여러 지인들과 많은 토론을 가졌던 바 있다.

그 결론은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와 우리대학이 함께 가는 방향을 주제로 삼은 "세계치유의 섬"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지금 행정에서 불로장생의 섬, 영리의 요람인 도임 등으로 상품을 만들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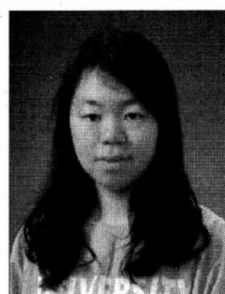
국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현대의 학 시설 및 연구시스템이 돼 있으며 오히려 돈 많은 부자들은 그곳으로 치료하러 가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쪽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이나 방법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의술을 세계치유의 섬에 접목하는 방법이다. 전통의술은 한의학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의술로서 쉽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기한 의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의술을 가진 명의가 있다. 이런 분들과 연계하며 '세계치유의 섬'을 선봉하고 홍보하면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이러한 의료를 서양에서는 대체의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체의학 시장규모가 2124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 '세계 보한 대체의학 시장 현황 및 향후전망 연구 보고서 발제'>

우리 제주대대학은 제주도와 손잡고 대체의학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대체의학에 관한 세계적 대학으로 만들면 대학홍보는 물론이고 대학 경쟁력이 강화되어 세계 학생들이 몰려 올 것이며 제주도가 풍요로워진다. 의료분야에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는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다.

독자기고

"공부보다 중요한 것 경험하고 싶어요"



김진형 국어국문 1

대학에 들어 온 지 며칠 안됐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3월에 오리엔테이션 받고 MT 다녀오면 금방 시험이 돌아오고, 리포트 몇 편을 제출하면, 체육대회, 그 다음 축제를 지나면 기말고사에, 곧 방학'이라고.

별 생각 없이 흘러들었던 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깊이 와 닿는다. 벌써 5월이다. 체육대회로 시작해서 축제로 장식하게 될, 정말이지 행사가 많은 달이다. 잠깐만 정신을 팔아도 손살갈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다보면 한 학기가 물거품처럼 무의미하게

지나가버릴까 봐 걱정이 크다.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스스로를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부는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대학생에게 있어 어쩌면 공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경험' 만큼 좋은 재산도 없다고 한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외적, 내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면, 내게 그 이상 큰 바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함으로써 자극을 받고,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아무리 머리에 띠를 둘러가며 공부를 하고, 새로이 결심하고 다짐을 한 데도, 직접 맛부딪쳐가며 체득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대학생활을 나보다 먼저 경험한 친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어떤 일에서든 내가 우선

사설

새 총장에게 바란다

4년 전에도 그러했는데, 이번에도 총장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임용이 늦어지고 있다. 설마 의혹이 진짜이겠는가? 별 것도 아닌데 투서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래도 매년 반복되니 부끄럽다.

자식이 잘되면 부모가 자랑스러워하고, 제자가 잘되면 교수들은 그의 스승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듯, 총장이 훌륭하여 사회적으로 추앙을 받으면, 모든 대학인들이 자랑스러워할 것이지만,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아직 임기를 시작도 하지 않은 분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랑스럽지는 못할망정 창피하지라도 않으면 좋으련만, 심심하면 이런 저런 좋지 않은 사안들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우리 대학을 생각하면, 학생들 보기에 민망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라인(제대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기간은 약간 늦어지더라도 어차피 순리대로 임용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주 말들이 많다면 우리대학이 받는 상처는 크다. 물론 결국 임용된 총장께서 대학을 잘 경영하리라 기대하지만, 혹 사사로운 감정으로 생긴 앙금 때문에, 새롭게 집단을 만들어 이전 집단에겐 한풀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대학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같아야만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의 종교는 같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만다. 그러나 단 맛이 좋은 맛이라고 오직 단 맛만 있으면 요묘한 맛은 없을 것이며, 물의 높낮이가 동일하면 흐르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 머무는 뿐인 것과 같이, 세상의 이치는 '차이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여, 사회가 변화하고 정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남의 병을 치료해주며 산다.

서로 사는 방식은 달라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추앙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와 자기의 무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이 문제이다.'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제도 탓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제도를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아는 사람이 더 잘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보다,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양심에 따라 자기의 사사로인 욕심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함께 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꼭 어떻게 해야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결정된 법은 없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좇으려고 한다면 언제나 옳을 것이다.

물론 떠난 분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새로 오실 분은 그와 생각을 달리하여 많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오시는 분은 지난날 잘못 경영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부정하며 고쳐려고 들지 말고, 서서히 고쳐나가되,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동료의 사람들만을 위하지 말고, 모든 아라인을 위해 일한다면 추앙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보복하려고 하거나,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제도를 고쳐려고 한다면, 떠나는 날 그동안 총장의 자리에 앉았던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디 '가진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훗날 추앙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날의 온갖 앙금을 내려놓고 오직 제주대학의 모든 이에게 추앙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경영해 주기를 바란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여론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ark12@jeju.ac.kr, 홈페이지 http://www.cnpupress.com

◆ 아마가사키 조선초중급학교 상담역 박상대 고문

우리 민족은 통일이 되면 두려울 것 없어



취재 둘째날 우리는 이수남(52, 조총련 서부지구 상임위원장)위원장의 안내로 아마가사키 조선초중급학교에서 학교의 고문인 박상대(79) 상담역을 만났다. 오사카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충청남도 공주라는 그는 북한에는 6년, 한국에는 2년을 갔었지만 공주에는 가본 적이 없어 매우 아쉽다고 했다.

학교의 가장 어른으로서 일본 내에서 민족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며 학교의 지원금을 받아내는 일종의 로비스트의 역할을 맡고 있는 그는 “평등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민족 교육을 멈출 수는 없다”며 학교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민족교육에 필요한 지원금은 일본에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현재 지금 5개 시(市)를 책임지고 교육장이나 시장 등을 만나 민족 교육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돈을 낼 때까지 만나고 있다. 가장 많은 예산은 시의회에서 받고 있다. 현재 받아내는 지원금이 학생 1인당 7만엔인데 이것을 14만엔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일본 사립학교는 학습일수는 우리의 절반인데 받아내는 돈은 1인당

28만엔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월급은 일반 일본교사들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그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다들 진작에 일본학교로 갔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진정 민족을 사랑해서 민족교육을 하는 것이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업료를 비싸게 받아낼 수는 없으니 일본에서 지원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밀항이나 납치 등 일본에서 제기한 문제들로 민족학교에 대해 형성될 수 있는 적대감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오랜 시간 믿음을 쌓아 왔기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납치와 교육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게 따지면 재일동포 문제는 얼마나 많은가? 일본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납치를 운운해야 할 것이다”며 “일본정부는 지금의 남북 분열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을 조속히 없애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일본은 패전 이후 지속적

인 식민사상교육을 60년째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민족교육을 강조해야 하며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족교육의 목표는 민족의 자주성 확립과 남북문제의 해결, 일본 내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위상 확립을 위한, 민족정신 고취 등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일동포의 권리 옹호는 민족교육을 지키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한 그는 민족교육을 지키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라고 말했다. “물론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기운을 낸다”고 덧붙였다.

지난 과거의 민족교육에 대한 질문에는 1세대들이 정말 많은 고생이 있었다고 했다. 1세대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학교도 있는 것이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민족교육은 해방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는 “초창기에는 빼앗겼던 우리말과 역사를 되찾는 운동에서 야간학교의 형식으로 어린이 5명~6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건물도 없어 어느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공부를 시켰다.

당시에는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원이 되었다. 우리말과 아리랑을 가르쳤다. 이 시기 졸업생들이 후에 교원이 되어 민족교육을 이어나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기에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을 폭력단체로 규정하고 탄압이 심해 이에 전국적으로 민족교육을 지키자는 운동이 확산되었다고, 자신은 이에 항의를 하다가 5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그 후 졸업생들이 선생님이나 교수로 돌아왔으며 점점 발전해 나가, 가장 번창했을 때는 157개교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귀화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민족학교의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귀화를 했다고 나쁘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성을 잃어버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우리 민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는 것은 결국 적의 손에 돌아나는 꼴이라고 밖에 생각하며 민단이든 총련이든 관계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교포들의 권리와 생활의 보호라고 말했다.

또 “우리 해외교포들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차별 없는 사회, 단결하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끼리 싸워서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소원을 묻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일’이라고 말을 했다. “우리 학생들의 희망도 역시 ‘통일’이다.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강하다. 나의 꿈도 역시 통일이 다. 남이든 북이든 일본이든 당당하고 자유롭게 오고가고 싶다”며 “납치문제든 뭐든 우리가 정당한 사업을 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정치적 계산 그런 것이 아니다”고 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자 같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용기 있게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열심히 공부해달라. 자신의 나라는 자신 손으로 지키고 우리 손으로 우리에 의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의 후세를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치는 조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 민족은 통일이 되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젊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노력을 당부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효형 기자

◆ 아마가사키 조선초중급학교 장석기 교장

우리는 모두 김치를 먹고 자란 한민족



아마가사키 조선초중급학교를 취재하던 우리는 학교의 교장인 장석기(54)씨를 만날 수 있었다. 재일교포 2세로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고향에 가본 적이 없어 아쉽다는 이야기로 말을 꺼낸 그에게서 학교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교장과의 일문 일답.

- 일본의 문부과학성(이하 문부성)이 민족학교를 인정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물론 본질적인 이유는 차별이고 표면적인 이유는 교육법 1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부성의 인정과 지원을 받으려면 문부성에서 인정한 교과서와 일본인 교사를 써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민족교육을 할 수가 없다. 일본 교과서와 일본인 선생님들로는 민족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학교 이름에서 조선이라는 말을 빼야 해서 지금까지 문부성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 학교 운영에 있어서 현재는 기부금도 줄어 들고, 학생수도 줄어 들고 있다. 문부성의 요구사항을 일부 병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어 과목의 경우는 일본어로 된 책이다. 산수 등의 과목은

일본학교와 교류도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 살면서 민족교육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교육을 많이 도입하게 된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예를 들어 문부성)도 여기 와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 다 이해할텐데 정부가 본질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다”

- 차별의 예를 들자면?

“축구경기의 전례가 있다. 우리 학교는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몇 년 전에 어떻게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일본 측에서 조선학교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대회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었다. 이에 우리는 반대 투쟁을 하였고 일본 사회 내에서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덕분에 이제는 인정해주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교류에 벽이 많이 없어졌다. 일반 시합에 대한 참가는 당연하고, 전국규모의 축구대회도 나간다. 축구만이 아닌 럭비나 복싱, 역도 대회에도 나가고 있다”

- 어려운 남북문제를 스포츠와 교육등으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민족정신이다.

몇 년 전 한국에서 개봉한 한반도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무척 놀랐다. 민족의 자주와 사대주의 사이의 역울함과 일본과의 관계의 어두운 일부분을 보아 아쉬웠다”

- 남북문제의 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관련된 많은 남한 사람들을 만나 봤다. 그중에는 소박한 사람들도 있었고 무엇인가 욕심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남북교류는 후대와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민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김치를 먹고 자라왔다. 남북이 현재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답은 통일 뿐이다”

- 여기서 북의 기준으로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통일 후 언어차이에 대해 남한에서도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은 글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남한은 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 차이가 생긴 것이다. 표현이 다른 것은 있으나 결국 뜻을 알고 어휘를 익히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재일동포의 경우들은 약간 독특한 우리말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쓰는 말에는 북한 어휘들이 많이 들어들었다.

남한 드라마를 자주 본다. 주몽이나 허준 같은 사극을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다. 외래어가 너무나도 많다. 자막이 있어야 완벽한 이해를 할 것 같다. 주몽 같은 경우에는 송일국의 연기도 좋았지만 고구려 주체사상을 다루어 놀라웠다. 이런 내용은 북에서는 제작할 수 없는데 남한에서 제작해 솔직히 속이 시원했다. 이런 드라마는 북측 사람들도 분명 좋아할 것이다. 정말 시원했다”

이효형 기자

◆ 조총련 조선학교 아마가사키 조선초중급학교를 가다

학교의 손님은 자신의 손님이라 생각... 예의바른 학생들

아마가사키시에 위치한 아마가사키 조선초중급학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가 합쳐진 학교로 총 학생수는 280여명 정도 된다.

유치원의 경우는 보육원의 역할을 같이 맡는데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3살이나 4살 때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과 같이 초급학교 6년, 중급학교 3년, 고급학교 3년의 과정으로 이뤄져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1년이 3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론 학기가 끝날 때마다 성적표가 나온다.

일반 일본학교는 모두 주5일제에 반해 이 학교는 매주 넷째주 토요일에 한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취재단이 찾은 날도 토요일이었었는데 학생들과 학교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우리가 찾아가는 날은 마침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다. 김치는 1달에 한번 담그고 교포들과 일본인

들에게 사전 주문을 받아 만들고 배달까지 해준다. 어머니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1년에 약 200만엔 정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수익금은 모두 학교의 운영금으로 들어간다.

운동장에서는 유치부의 체육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라톤 수업이었다. 2월 말이라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모두 얇은 옷과 반바지를 입고 운동장을 달렸다. 좁지 않은 운동장을 총 일곱 바퀴를 뛰었지만 어느 아이 한명 엄살 부리지 않고 묵묵하게 끝까지 뛰었다.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줬고, 구경을 나온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카메라나 캠코더로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모습이 어느 학교와 달라 보이지 않았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서 한 가지 또 놀란 것이 아이들의 인사성이 정말 밝았다는 것이다. 인사만이 아니고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내

가 아이들의 공손한 모습에 놀라는 모습을 보았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박운교(60, 조총련 아마가사키 서서부 부위원장)씨가 말하기를 “여기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때 부모님(대부분이 졸업생)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학교를 다니면서 보고 자란다. 그래서 학교의 손님을 자신의 손님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요즘 일본의 일반 학생들은 애교심이나 인성교육이 잘 돼있지 않으나 우리 학교는 애교심과 인성교육만큼은 잘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아이들의 교복에 대하여 묻자 교복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답했다. “일반 일본학교와 비슷한 교복처럼 보이는 것을 제1교복이라고 하고, 치마저고리는 제2교복이라 한다. 두 가지의 교복 중 학생이 입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입는다고 했다. 이러한 교칙이 생긴 것은 10년 남짓 되었다고 한다. 그 전까지는 치마저고리를

계속 입고 다녔었는데 조선학교를 좋지 않게 보는 일부 일본학생들에게 린치를 당하는 등, 학생들의 신변상의 문제가 점점 많이 발생하여 학부모들도 걱정이 커지고 학교로서도 간과할 수가 없어 일본 학생들과 비슷한 교복을 만들고 2가지 교복 기준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받는 수업은 내가 생각했던 초등학교 수업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일본어나 영어 등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우리말로 이뤄지고 있었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교실과 수업환경을 촬영했고 가끔 눈이 마주치는 아이들은 공손히 인사를 하거나 가끔 아이답게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봉급도 일반 일본학교의 3분의 1수준인데 아무래도 생활의 유지가 버거운 부분이 있어 결혼을 한 후에는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일쪽이나 만드는 편이라 한다. 그래서 선

생님이 바뀌는 주기가 아주 빠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젊은 편이다. 하지만 이 학교에 지원한 모든 선생님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뜻을 가지고 지원하고 학교는 그런 젊은 선생님들을 매우 고맙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영어 과목의 경우는 외국인 원어민이 가르치는데 그런 강사들은 조선학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일본학교나 학원 강의도 하고 있으며, 다른 곳만큼 보수를 주지는 못하나 학교 사정을 이해하기에 외부 강사의 운영에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한다.

교장실에 걸려있던 김일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과 북도 중간중간에 붙여 있던 인공기가 조총련이 지은 조선학교임을 알게 해줬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주체사상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많지는 않다고 한다. 90년대까지는 혁명역사라는 과목이 있었으나 점점 일본 실정



아마가사키 조선초중급학교의 초급부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가 가르치는 영어 수업을 받고 있다. 수업의 모습은 어느 초등학교와 다르지 않다.

에 맞추어가며 혁명역사 과목을 없었다. 일본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신세대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교육을 해도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다. 이제는 사회과목 현대사 부분에서 약간 다루는 정도고,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리말, 애교심, 민족성이었다.

학교를 둘러보며 느낀 것은 인성교육이 정말 잘 돼있는 것이었다. 화장실은 따로 준비된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 하는데 내던져져 있기 쉬운 슬리퍼들도 모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으며 모든 아이들은 항상 인사를 잊지 않았

다. 오사카 시내 속의 초등학교 풍경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중급부를 제외한 학교 전체를 돌아보고 중급부 아이들이 멀리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며 우리에 대해 인사했다. 그동안 조선학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얽매고 있었던 것 같아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좋은 대접을 받은 것 같고 큰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떼기가 아쉬웠다. 학교나 교과서, 다른 매체에서도 배우지 못한 내용들이라 모든 것이 새롭고 많은 것을 배워가는 즐거움 시간이었다.

이효형 기자